

창 내고 저

당신이 놓친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교정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학교입니다. 건물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주변에서 빼곡히 자라고 있는 꽃과 나무들이 한층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정의 꽃과 나무는 몇 종류나 될까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무심코 스쳐지나기 때문에 알지못했던 몇가지 보물들을 찾아드릴까 합니다.

지난 1학기 생물실습시간에 “우리학교 식물 관찰하기”를 주제로 교정을 다니며 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도중에 선생님이 혈떡고개 옆에 핀 라일락을 설명하시며 잎을 따서 저에게 맛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맛이 너무 써서 혀가 얼얼했습니다. 나중에 ‘라일락의 쓴 맛은 첫 사랑의 쓴 맛과도 같다’는 속설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보며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그리 독특한 맛과 뒷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게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 혈떡 고개를 지날 때 라일락을 보면 항상 반갑게 느껴집니다.

또 여름방학에는 식물을 익히기 위해 산행을 주로하는 동아리인 ‘본초학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장기채집을 위해 한라산으로 떠났습니다. 속소 주변은 물론이고 한라산, 물영아리 오름(제주도 지역에 있는 기생화산을 이르는 제주 사투리), 바닷가의 식물들을 관찰하고 몇 종은 직접 채집했습니다. 평소 식물에 관심이 없던 저도 제주도의 ‘망초’, ‘맥문동’, ‘주목’, ‘애기풍뎡’, ‘천남성’ 등 많은 식물이 예쁘고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온지 몇 일이 지나지



▲ 제주도에 핀 ‘망초’

않아 학교에 오니 ‘망초’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망초’ 뿐 아니라 중앙도서관 앞에는 보라색 꽃이 아름다운 ‘맥문동’을 비롯하여 제주도에서 본 대부분의 꽃들이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씩 교정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매일 걷던 길이고 보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좀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길을 걷다 친구를 만난 것 처럼 말이지요.

여름도 한 풀 꺾이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많은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 단장을 하고 학우들을 맞이하겠지요. 길을 걷다가 눈길에 가는 꽃 앞에 잠시 멈춰서서 꽃을 보고 이름을 알아보면 매일 걷던 학관 앞 길이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잠시만 멈춰서서 제가 드린 힌트로 보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드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고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익근 <한의학 2006>



문경연의 드라마틱 (dramatic)

청춘은 청춘이므로 충분하다

청춘의 방향은 가벼운 일탈을 넘어 삶의 경계와 맞닿아 있기도 할 만큼 청춘인 당사자들에게는 고역의 시간대이다.

지금 청춘인 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청춘의 시간을 통과해 왔다고 느끼는 사람들 역시 수긍할 것이다.

열정과 욕욕은 넘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 조건 안에서 허우적대기 일췌이고, 청춘의 판단과 선택에 늘 비껴서 있는 기성의 가치 질서 안에서 괴로워하며 상처받는다. 그리고 무기력해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청춘은 예찬받을 만하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무수한 ‘청춘예찬’의 글들 앞에서 난감했던 적은 없는지, “그럼에도”라는 역설 앞에는 깊은 강이 놓여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연극계에 작은 신화가 된 연극 <청춘예찬>은 청춘의 역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직관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주인공 영민은 고등학교 2학년만 4년째 다니고 있는 문제 학생이다. 그

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TV와 밧바며 소주병을 끌어안고 사는 술꾼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함가에 빠된 염산에 눈이 멀었다.

영민은 ‘쓰레기 같은 청춘’을 저주하고, 아버지에게 “사지가 멀쩡한데 노가다라도 뛰어”라는 반말로 현실에 대한 환멸을 퍼붓는다.

도무지 숨구멍을 찾을 수 없는 구질

“행복해라. 넌 그래야지. 젊으니까.”

구질하고 비루한 삶의 극단이며, 예찬은 커녕 존중받지도 못하는 청춘이다. 게다가 영민은 다방 주방에서 일하는 수희에 대한 연민으로 하루 밤을 보내고, 그녀는 임신을 한다.

‘하마같은 동보’ 인데다가 간질을 앓고 있는 수희를 끝내 뿌리치지 못한 영민은 그녀를 받아들인다. 좁아터진 방 한 칸에 세 사람이 누우면 “관 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다는 아버지의 말은,

아름다운 대사로라 하기에는 그저 진 싨할 뿐이다.

영민의 아버지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좁은 방 천장에 단 야광벌, 야광벌이 희망을 의미한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은 냉정하고 우리는 영악하다.

우리는 동보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물려받을 것임을 알고 있고, 되

학년 영민의 앞길에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안다. 야광벌자리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랑. 이들이 서로를,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안쓰럽고 따뜻한

다. 기억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영민을 포기하지 않았던 세게사 선생이 영민에게 했던 말이 “꿈을 가져라” “참고 견뎌라”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류의 계몽적인 조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저 “행복해라. 넌 그래야지. 젊으니까” 였다. 청춘의 열정과 에너지를 예찬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청춘을 당진한 자, 혹은 청춘을 그리워하는 자들의 몫이다. 청춘은 청춘이므로, 젊으므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영민의 삶과 연극 <청춘예찬>의 이력이 닮은 꼴 인 것은 ‘청춘’에 대한 단상을 조금 더 붙들어 줄 것도 같다. 영민의 남루한 청춘과도 같았던 <청춘예찬>의 초연은 아주 작고 초라한 워크숍 공연이었다고 한다.

가난한 무대에 담긴 지독한 결핍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연장공연을 거듭한 끝에 한국 연극의 모든 상을 휩쓴 저력의 연극이 되었다. 무명배우들이 스타가 되었고 연출가는 ‘박근형표 연극’이라는 레테르를 확보하면서 연극계를 이끌만한 입지를 다졌다. 가난한 청춘 연극인과 연출가들이 스스로 벌인 것이다.

문경연 <국어국문학> 강사

독 자 투 고

취업 준비 학생에 더 많은 배려를

우리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채용설명회나 채용면담이 부족하다. 취업을 앞둔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설명회나 채용 면접에 참가한다고 한다. 그래서 취업처에 문의했으나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채용 시기가 이른 시기에 접어들어 있는 것을 채용설명회와 하기 때문에 예정된 채용설명회 및 채용면접 이외에는 더 이상의 계획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한 부산, SK,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들이 4일부터 서류전형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서

류전형이 다 끝난 9월 15일, 20일 이후에 자기소개서 클리닉이나 기업직무적성 등에 관한 특강이 잡혀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특강이라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좀 더 많은 채용설명회와 채용면접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특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

최창용 <경제통상 2000>

테니스 코트관리, 학생 몫?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해서 공대 앞 테니스코트를 자주 찾는 편인데, 갈 때마다 관리의 부족함을 실감한다.

우선 넓은 네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재 네트 하나는 완전히 주저앉아 학생들이 노곤 등을 이용하여 근근이 줄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이다. 그 상태로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관리실이나 체육대학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다.

담당하는 부서에 여러번 시정을 요청했으나 관리팀과 체육대학은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테니스 코트는 학교의 시설물인 만큼 학교에서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데 아무런 관리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물론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이러한 작은 행정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호순 <전자정보학 2005>

시론

건전한 도박과 ‘한탕주의’



즘은 이 중 ‘잡기’가 문제다. 바로 ‘바다 이야기’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는 도박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인 오락실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자리를 잡으려 하는 상품권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여타 정치적 문제들은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꼽자면 서민경제의 파탄이 그것이다. 적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복권이나 금전적으 로 큰 부담이 없는 하투와는 달리 게임기의 형식을 빌린 성인 오락기는 기계음과 화면에 중독되기 쉽고 승률조작이 문제가 된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나

도 당칠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하고 언제가는 당칠될 것이라는 희망에 전 재산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무조건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도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허황되다고 본다. 성매매 등의 다른 사회죄 문제에서도 봐 왔듯, 정부의 정책이 강력해질수록 도박은 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비리에 연루되거나 심각한 도박 중독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애들은 서민들만 경제적으로 몰락할 위험도 있다.

때문에 도박을 양성화하고 하나의 여가 문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박은 서민들의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적은 확률이나마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순기능

이 있다. 이를 살리면 카지노처럼 합법적이고 공정한 게임이 보장되는 건전한 오락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박이 건전한 여가 문화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탕주의’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박으로 돈을 따는 방법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여흥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만 도박이 오락으로서 설수 있다.

‘도박 도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가 된 라스베이거스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일본의 파경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쁜 도박은 없다. 도박도 잘만 하면 건전한 게임이 된다.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1.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khu.ac.kr)에서는 교원의 급여안내, 연구/업적관리,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좌관리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터넷 휴 · 복학 신청, 예비입금신청, 시간표/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회, 장학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모바일신문을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본교 홈페이지(www.khu.ac.kr) 상단의 [khuis] 버튼이나 하단의[종합정보시스템]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단,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메일주소를 등록하지 않아 비밀번호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비밀번호 초기화(주민등록번호로 초기화됨)를 요청하신 후 로그인하여 비밀번호 변경 및 이메일주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및 홈페이지 시스템

이메일 시스템은 시간과 지역의 제한이 없는 웹메일을 기반으로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병행 지원하여 시스템이며, 웹메일시스템 홈페이지(mail.khu.ac.kr)에서 온라인으로 계정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학생 개인 홈페이지 계정은 본교 홈페이지 사내에 공간(교직원100Mbyte/학생300Mbyte)을 할당받아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재직/재학 기간에 한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웹퍼스] - [인터넷서비스] - [홈페이지 계정사용안내]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정보지원처 부서 이메일(it@khu.ac.kr)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등록한 본인의 메일계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온라인 백신 다운로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교내 PC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교내 구성직원 누구나 본교 홈페이지(www.khu.ac.kr) [웹퍼스] - [인터넷서비스] - [온라인백신설치]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백신설치와 점검, 백신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안전한 컴퓨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시간에 자동으로 바이러스 점검과 백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하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경희대학교 교내 IP대역 163.180.xxxxxx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본교의 저작상 및 저작권은 경희대학교 캠퍼스 라이선스가 체결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 홈페이지(www.khu.ac.kr) [웹퍼스] - [인터넷서비스] - [Software 다운로드]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지원처 사무실에 방문하시던 신분확인 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인스톨 CD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경희대학교 교내IP대역 163.180.xxxx.xxx에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6. 수강생에게 매일/문자보내기 서비스

교수/강사는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매일/문자를 단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수업/성적/성명] - [수강생관리] - [매일/문자 보내기] 메뉴에서 학년도/학기, 강좌, 받는 사람 등을 선택하여 수강생에게 매일 또는 문자를 동시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 확인을 위해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수/강사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전송되며, [문자전송내역보기]메뉴를 이용하여 문자전송 결과 및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가능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7. 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망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IP address 및 domain name을 신청하셔야 합니다(domain name은 선택사항, 정보지원처 홈페이지 http://ois.khu.ac.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시어 이메일을 이용하여 정보지원처(it@khu.ac.kr)로 신청하시기나, 부서를 방문해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학생 인터넷증명발급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웹퍼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증명서발급 서비스] 메뉴에서 인터넷증명발급센터(kyunghhee.certipia.com)에 접속할 수 있으며,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서, 휴학증명서, 교직원수증명서, 수료증명서입니다.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이며 같은 종류의 증명서를 여러 장 발급받는 경우에는 1매 추가될 때마다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증명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출결 시스템

전자출결 시스템은 타블렛 모니터, 전자 펜, 펜서 프로그램(PenDesktop), 웹 프로젝트터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강의실 환경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즈를 쉽고 편하게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온라인 강의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10. 연준 (N-Zone)

연준 서비스는 교내에서 KTF 이동전화 기가지정에 일반 통화 및 구내전화 통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내 유선 교환망을 CDMA 무선망과 연동시켜 휴대폰으로 이동전화와 구내전화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복합서비스로서 재학생(대학생 포함) 및 교직원(교수, 직원, 강사, 조교) 중 KTF 이동전화 기가지정에 제공됩니다.

11. 네스팟(Nespot)

네스팟은 교내 어디에서든지 노트북, PDA 등을 이용해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LAN 시스템입니다. 네스팟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학내 ID] 또는 [망역 ID]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본교 홈페이지 [웹퍼스] - [인터넷서비스] - [웹퍼스 무선망 서비스] 메뉴에서 [학내 ID]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망역 ID]유료]는 동일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KT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내 ID]는 서술/수업명/과목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역기간은 7일 이하, 대역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무선 랜카드는 정보지원처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2. PDF 자동변환 서비스

MS-Word, MS-PowerPoint 등의 일반문서를 PDF파일로 쉽게 자동 변환할 수 있는 [PDF 파일변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DF 자동변환 서비스는 PDF변환 접속프로그램을 통해 [PDF 파일변환 서비스]에 연결함으로써, 윈도우 기반의 일반적인 문서파일(MS-Word, MS-PowerPoint 등)을 PDF형식의 파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7글 미지원). 자세한 사용방법 안내와 접속프로그램 다운로드 본교 홈페이지 [웹퍼스] - [인터넷서비스] - [Software 다운로드]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경희대학교 교내IP대역 163.180.xxxx.xxx에서만 서비스 접속 및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13. 모바일 정보서비스

모바일 정보서비스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각종 학사행정정보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현재는 KTF 휴대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조회, 성적조회, 등록조회, 교직원조회, 급여조회, 개인정보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모바일 출입인증 서비스

모바일 출입인증 서비스는 휴대폰(KTF)을 이용하여 도서관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현재는 수월 증명도서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휴대폰에 'Mobile 신분증'을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은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보다 쉽게 증명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으며, 향후 휴대폰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15. 전자출결

전자출결시스템은 출석 체크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수강조표 활용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여 출결사항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대단위 강의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서울C 2개, 수원C 2개 강의실에서 시범운영 중). 바로저장시스템에 발급 받은 학생증을 강의실에 설치된 키드리더기에 통과시키면 자동 출석 처리되며, 본인의 출석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경희 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에 대한 도서관/학사, 학사정보, 수업관련(휴강, 연기등) 여러 가지 사항을 휴대폰의 SMS(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 원격 화상회의 지원

폴리콤사의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3기 보유하여 미국 볼티모어 대학교와 연계한 화상강의 및 화상회의를 지원하고, 서울/ 수원 캠퍼스 및 평화로 대학원 간 화상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시간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 기타

가. 개인정보처리(원도외보안 취약점 자동패치 프로그램(nProtect) 배포 안내) 교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서비스와 PC운영체제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웜/바이러스의 감염 등을 방지하고자 PC운영체제 보안취약점 자동 패치프로그램(nProtect)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일정기간의 배포기간동안 인터넷 접속 시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는데 설치 안내창의 진행 안내에 따라 소속, 사용자명, 전화번호를 입력 후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PC의 사양에 따라 약 2분~5분 정도입니다. 자동 패치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는 계속해서 설치 안내창이 나타나거나 자주 교내 전산망 운영체제 결정을 부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배포기간 이외에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 소속 캠퍼스 별로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동설치 됩니다. - 서울캠퍼스 : http://wunak.khu.ac.kr/npem/install - 수원캠퍼스 : http://kwunak.khu.ac.kr/npem/install - 수원캠퍼스 기술지원팀(배지환) : http://ohiak.khu.ac.kr/npem/install nProtect가 설치된 PC는 MS에서 월 1회 이상 취약점 패치가 발표되는 시점에 맞추어 패치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주기적인 취약점 검색 및 PC의 변화해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보다 안정적인 PC 사용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나. 학생/교직원 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 등록 안내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중에서 학사행정정보/행사안내/강좌 수강생 공지사항 등의 이메일/문자 전송서비스는 종합정보시스템 내의 개인정보 중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학사/행정상의 긴급 연락사항이나 공지사항 발송 시 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는 중요한 연락 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등록 방법론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정보관리] 또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E-mail]/[휴대폰] 항목에 각각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본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클린 사이트가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별 호환에 의거 행위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교의 저작상 및 저작권은 경희대학교 캠퍼스 라이선스가 체결된 공공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교 홈페이지(www.khu.ac.kr) [웹퍼스] - [인터넷서비스] - [Software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수업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www.khu.ac.kr)와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E-mail(it@khu.ac.kr)로 주시기 바랍니다.